



KIA-롯데전 우천취소에 두 감독이 웃은 까닭은?



부상자 많아
잘됐다

1위 지켜서
괜찮아

선동열 감독 "다음주 정상화...한 경기라도 아껴두고 싶어" 양승호 감독 "꼭 이긴다는 보장 없어...차분하게 전력정비"

위기의 KIA, 잘나가는 롯데가 봄비에 주말 대결을 벌이지 못했다. 21·2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KIA와 롯데의 경기가 우천취소됐다. 이틀간 선발로 대기했던 KIA 김진우와 롯데 이용훈은 봄비에 끝내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두 선발에게는 아쉬운 주말이 됐지만 양팀 사령탑의 표정은 밝았다.

부상 도미노에 시달리고 있는 KIA는 19일 마무리 한기주까지 어깨 통증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면서 마운드가 초토화됐다. '해결사' 이범호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직 시즌을 시작하지 못했다.

양현종·라미레스가 22일 2군 피칭을 시작하는 등 다음주 손영민의 엔트리 등 록을 시작으로 부상병들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력 정상화까지 한 경기라도 아껴두고 싶은 게 '위기의 팀' KIA의 마음이다.

선동열 감독은 "손영민이 지난 2군 등판에서 7회 원아웃까지 공을 던졌다. 내용도 좋아서 다음주 1군에 올릴 예정이다. 중간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또 양현종과 라미레스도 등판을 시작했다. 한 차례 정도 더 던지게 하고 1군으로 부를 생각이다. 5월초가 되면 어느 정도 전력 안정 될 것이다"고 밝혔다.

롯데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 우천취소였다. 방망이가 한껏 무르익은 롯데는 20일 KIA를 11-7로 꺾고 1462일만에 단독 1위 자리에 올랐다. KIA의 볼펜과 타선이 제자리를 못잡고 있는 만큼 그 기세를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천취소가 결정된 뒤 1위팀 감독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다.

양승호 감독은 "경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승리를 따르는 거다. 다른 팀 경기가 취소되면서 일단 월요일까지 '3일 천하'는 가게 됐다"면서

웃었다.

또 "너무 잘나가서 걱정일 정도로 타격 페이스가 좋는데 타격이라는 게 기록이 심해서 믿을 게 못된다. 이승호도 다음주 상황을 지켜보고 부를 생각하고, 마운드 부상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 차분히 전력을 정비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롯데는 22일 KIA 에이스 윤석민을 만나야 했다. 팀 타율 1위를 자랑하는 롯데지만 워낙 윤석민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만큼 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도 있는 위기였다.

또 유격수 문규현이 20일 팔꿈치에 공을 맞아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 그라운드가 미끄러워 야수진들의 부상 위험까지 있었던 터라 롯데에게도 나쁘지 않은 손익계산이었다.

극과 극의 일장예 선 양팀 사령탑이 우천취소에 웃은 이유다.

한편 우천취소로 윤석민의 등판이 미뤄지면서 24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는 윤석민과 박찬호의 빅매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 ▲청개구리야. 너 청개구리지? = 선동열 감독, 지난 넥센과의 경기에서 나지완에게 우측상상으로 치라고 했는데 반대로 쳐서 안타를 만들었다며.
- ▲몸쪽으로 들어와서 말입니다 = 외야수 나지완, 공이 몸쪽으로 바짝 들어와서 우측으로 밀어칠 수 없었다며. KIA는 이날 8회 나지완의 청개구리 타법(?)으로 3점을 뽑는데 성공하며 4-1 승리를 거뒀다.
- ▲사진 좀 줄래? = 이순철 수석코치,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할중인 이범호가

나지완 "청개구리 타법으로 승리했죠"

지나가자 얼굴 보기 힘들다며.

▲금방 가겠습니다 = 얼굴 보기 힘들다는 편지에 내야수 이범호가 수석코치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4점까지 봐줄테니까 마음대로 던지라고 그랬지 = 롯데 양승호 감독, 20일 선발 사도스키가 볼넷을 9개나 주면서 부진했지만 선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강판 뒤 사도스키는 양 감독에게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어쩌겠냐. 니 운이다 = 양승호 감독

이 이를 연속 우천취소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선발 이용훈을 보고,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24일 롯데 선발은 유민이 맡는다.

▲그냥 던지는 거죠 = 24일 한화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된 에이스 윤석민, 로테이션상 박찬호와의 대결이 예상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괜찮았어요? = 아이싱을 하고 지나가던 투수 한기주, 괜찮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기주는 어깨 통증으로 19일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복이 2골 넣었지만...



광주, 성남에 2-4 역전패... 전남은 대전에 3-1 승리

광주 FC가 22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2012시즌 9라운드 경기에서 2-4로 시즌 두 번째 패를 기록했다. 성남 에벨론이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광주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다.

'복덩이' 광주 복이의 높이와 성남 에벨론의 스피드 대결이 흥미롭게 전개됐다.

전반 35분 김수범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띄운 공이 복이를 향했다. K리그 최장신(201cm) 복이가 뛰어올라 헤딩슛을 날리며 성남의 골문을 열었다. 곧이어 광주에 동점 위기가 찾아왔다. 성남 에벨론이 빠른 속도

로 광주 진영으로 치고 오르는 사이 골키퍼 이정래가 전면에 나서면서 골대가 빈 상황. 하지만 에벨론의 슈팅은 골대를 비켜났다.

후반 시작과 함께 성남이 빈틈을 파고들면서 맹공에 나섰다. 절호의 득점기회를 놓친 에벨론이 광주를 흔들었다. 후반 4분 에벨론이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리고 오른쪽 슛을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성남 이창훈이 날린 슈팅을 골키퍼 이정래가 간신히 막아냈지만 후반 10분 에벨론이 김성준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하면서 1-2를 만들었다.

후반 14분 광주 주장과울로의 발과 복이

의 머리가 골을 합작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주장과울로가 올려준 공을 받은 복이가 머리로 다시 성남의 빗장을 풀었다.

이정래가 성남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지만 매서운 공격은 계속됐다. 결국 에벨론이 후반 27분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골을 넣으면서 성남의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35분 성남 박세영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경기는 2-4, 광주의 패로 끝났다. 3승4무2패가 된 광주는 8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한편 전남은 홈에서 열린 대전과의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5분과 49분 윤석영과 심동운의 골로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며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2승4무3패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봤지?" "짜증나"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가 2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캄푸에서 열린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득점왕 경쟁중인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를 지나쳐 가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메시에 KO승

레알 우승·득점왕 눈앞

레알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결승골에 힘입어 엘 클라시코에서 오랜만에 웃었다. 마드리드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푸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 2-1로 이겼다.

먼저 골을 터뜨린 것은 마드리드의 사미 케디라였다.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페페가 골문을 향해 헤딩을 날렸지만 골키퍼 발데스에 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공은 케디라의 발 끝에 걸렸고 케디라가 발을 살짝 들이밀어 첫 골을 뽑

아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들어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사비와 후반 24분 교체 투입된 알렉시스 산체스가 그라운드에서 들어온 지 1분 만에 한 점을 만회했다.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날두가 이음표를 해냈다. 호날두는 외집이 순간적으로 찰라준 공을 이어받아 골 그물 좌측 코너를 흔들며 마드리드의 역전극을 연출했다. 호날두는 시즌 42호골을 결승골로 장식, 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28승4무2패, 승점 88을 쌓은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를 7로 벌려놓고 리그 1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오늘 무안골프장에서 열려

전국 첫 주니어 골프대회인 '제19회 파백스-빅아드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무안골프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겨울 기량을 닦아온 1480명의 전국 주니어 골프 꿈나무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우수 선수에게 가산점수가 부여돼 국가상비군 선발시 특전혜택이 있어 주니어 골프 선수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회기간은 5일이지만 동계훈련과 연습 등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 내방객은 선수·임원·학부모 등 연인원 2만3000명으로 추산돼 22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DAEMYUNG RESORT NEWS



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가 창립 33주년 및 2012년 3월 엠블호텔 여수 개관을 기념해 오너십 정회원권을 특별 한정 모집중이다. 출시한 특별상품은 정상

골프, 스키, 오션월드,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대명리조트 특별분양 "지금 절호의 구입기회!" 엠블호텔 여수 개관기념 특별분양!

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약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1/12 지분 등기제 분양이므로 법적 재산권을 보장 받으며, 다양한 회원혜택과 가입자격의 제한도 개인기명, 무기명 및 법인업체 명의로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각 직영 어쿠아월드 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신규 특별혜

택으로 부여되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전국의 대명리조트 10곳(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을 회원자격으로 별장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발디파크는 4계절 내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스키월드, 정구골프장C, O, 온월드, 퍼블릭 9홀 골프장 등 각종 부대시설과 2,600



엠블호텔 여수(12.3.16 개관)

● 국내 최대규모 7,757실 · 전국 12개지역 직영 체인망 ● 국제 수준의 사계절 리조트 [비발디파크] ● 세계6대 워터파크 [오션월드] ● 대명리조트 맞춤형 멤버십 출시!

대명리조트 설악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설버지 호텔&리조트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변산 · 비발디파크 오코트, 파인드, 메이플우드, 체리드, 노블리인드 · 유스호스텔 · 비발디파크 스קי월드 · 비발디파크 컨트리클럽 ·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 소노벨리체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좌 : ▶우리는행 1005-900-997807 ▶신한은행 295-05-061967 | 노블리안 납입계좌 : ▶신한은행 140-008-634503 | 예금주 : (주)대명레저산업

회원가입문의 **062)380-0725**
 지점계좌로 입금된 임회금만 유효합니다.